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체 이미지의 추상적 표현을 통한  
자아 탐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전 효 원

신체 이미지의 추상적 표현을 통한  
자아 탐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조 병 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전 효 원

# 인 준 서

전효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 박 영 근 ..... (인)

심사위원 ..... 임 상 빈 ..... (인)

심사위원 ..... 조 병 왕 .....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작업한 'G35' 시리즈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조형 연구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G35' 시리즈는 중증질환자인 내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나의 신체 이미지를 활용하여 캔버스 화면 내 추상적 이미지 구성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기 치유를 시도하는 작업이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장수 혁명(longevity revolution)의 시대'<sup>1)</sup>라고도 불린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 및 첨단 기술의 보급으로 현재 5세 연령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들이 남아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같은 시기의 의학으로 치료가 어렵고 치료 조건이 한정적인 질병을 뜻한다. 나는 다발성경화증 환자로서 현실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자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나의 내면의 감정 상태와 극복 의지를 나의 신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캔버스 화면에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 작품 제작 과정 및 결과물을 통해 내적치유를 추구하고자 한다. 캔버스 화면 위에 빨간색으로 나 자신의 이미지를 그려 넣고 그 위에 흰색 계열의 색을 반복적으로 레이

1) 유영규, 『장수 혁명의 시대...'100세 청춘' 고령자들이 전한 비결』, (SBS 뉴스, 2024.05.12. 접속)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9295&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9295&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어를 쌓거나 물감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 붉은색 신체의 존재성을 불명확하게 만들면서 내면의 정서적 안정을 기대하고 억눌려 있던 감정의 표출을 시도한다.

본 논문에서는 나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치유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삶이 예술을 통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예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고통과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확립한다. 이는 자기 이해를 돕고, 자존감을 높이며, 자기 수용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나의 작품을 보며 난치병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논문을 통해 이러한 예술적 승화의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예술적 치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 자신에게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내가 진행한 표현적 연구 방식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계를 극복하길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작품 내용 연구	4
1) 희귀난치성 질환과 삶의 공존	4
2) 희귀질환자의 삶과 예술과의 상관관계	7
2. 작품 조형 연구	10
1) 촬영과 편집을 통한 신체 이미지의 재구성	10
2) 레이어 중첩을 통한 추상적 표현	14
3. 작품 분석	19
III. 결론	41
참고문헌	43
ABSTRACT	47

## 작 품 목 차

[작품 1] Untitled, 61x72cm, mixed media on panel, 2022

[작품 2] G35-03, 90.9x72.7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3] G35-04, 90.9x72.7cm, acrylic on canvas, 2023

[작품 4] G35-01, 90.9x72.7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5] G35-02, 90.9x72.7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6] G35-14, 162.2x130.3cm, acrylic on canvas, 2023

[작품 7] G35-08, 90.9x72.7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8] G35-10, 90.9x72.7cm, mixed media on panel, 2023

[작품 9] G35-13, 119.2x85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10] G35-16, 119.2x85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11] G35-15, 162.2x97cm, acrylic on panel, 2024

## 도판 목차

[도판 1] 본인 MRI 사진

[도판 2] 일반인의 MRI 사진

[도판 3] Carolee Schneemann, <Interior Scroll>(1975)

[도판 4] Jenny Saville, <Trace>, 213.4x182.9cm, oil on canvas,  
1993-1994

[도판 5] Chiharu Shiota, <Between Us>(2020)

[도판 6] 하이디 부허가 건물의 표면을 라텍스로 떠내는 과정

## I. 서론

현대의 의학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치료 기술을 찾지 못한 희귀난치성 질환들이 많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질환 관리법’에서 유병(有病)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sup>2)</sup>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의료비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많은 기업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의 사회적 관심은 아직 미약하여 점차 높아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나는 난치성 질환이 있는 나 자신의 조형적 표현을 통한 자기 극복 과정을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한다. 내가 가진 질병인 다발성경화증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여 자신의 미엘린<sup>3)</sup>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신경 손상을 겪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손상된 신경 경로와 관련된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 증상은 감각 이상, 운동기능장애, 시각장애 등이 있다. 환자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지팡이를 짚게 되고, 후엔 휠체어를 타게 되며 결국엔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보행 장애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증상 외에도 병증으로

---

2) 네이버 지식백과, 희귀 질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4140&cid=67525&categoryId=67525>,  
(2024.05.12. 접속)

3) 신경섬유를 둘러싼 보호층

인해 사회활동에 제한을 겪으며 사회적 지위와 대인 관계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질환 발생 후 이혼이나 실직을 경험했다는 통계조사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 질환을 동반할 수도 있기에 환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

나는 예술가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표출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겪는 나의 정신적 불안과 육체적 고통을 예술 작품으로 시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 도모와 스스로에 대한 치유를 시도한다. 어찌 보면 이 과정은 미술치료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투사 되는 신체는 인물특정성을 지움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입하여 공감할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물감을 뿌리고 밀어내는 반복행위는 치유의 감각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질병을 가진 환자로서 겪은 어려움과 우울, 불안적 요소를 작품에 담고자 한다. 캔버스 화면 위에 질환에 노출되어 취약한 나의 신체 이미지를 표현한다. 대상을 재현하기보다 물감을 뿌리거나, 롤러로 짓이기며 내는 추상적 효과들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극복하는 행위를 시도한다. 이 제작 과정은 자기 극복을 인식하고 누적시켜 스스로를 정화하고 나아가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끌어내고자 한다.

본론 1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 연구에 대해 서술하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삶에 예술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관해 분석한다. 2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연구에 관하여 서술하고 신체 이미지를 통한 자기 치유에 접근하며

작품 제작의 과정이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3장에서는 작품의 발전 과정과 각각의 특징들을 서술한다. 결론에서는 연구 배경, 목적, 작품의 표현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예술 치유의 상관관계에 대해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작업 방향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

## II. 본 론

### 1. 작품 내용 연구

#### 1) 희귀난치성 질환과 삶의 공존

나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이다. 다발성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환자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sup>4)</sup> 나의 경우,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균형감과 미각을 잃었다. 동양인 다발성 경화증 환자 대부분이 시신경 쪽으로 신체적 이상이나 증상을 겪지만, 나의 경우 초기 진단뿐만 아니라 재발까지 병증이 항상 균형 상실이였다.

다발성 경화증을 완치하는 치료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에 나는 주사 치료, 경구 치료, 정맥 주입 치료 등을 통해 병의 경과를 조절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질환은 중추신경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데 시신경, 뇌간, 척수, 대뇌, 소뇌에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한쪽 또는 양쪽 시각 장애나 상실, 안진, 감각 및 운동 장애, 피로, 우울, 떨림,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sup>5)</sup> 또한 다발성경화증은 여러 가지 패턴으로 발현되는데, 크게 재발

---

4) 네이버 지식백과, 다발성경화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2628&cid=56740&categoryId=56740>  
(2024.05.08. 접속)

5) 브라이언 매튜스, 마가렛 라이스 옥슬리, 『다발성경화증』, 문준식 외 옮김, 백의, 2010,

완화성 패턴, 원발성 진행성 패턴 등이 있다.<sup>6)</sup> 치료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2년마다 약 1건이 재발하지만, 빈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나는 재발 완화형 패턴으로 1년에서 2년마다 두, 세 차례 재발이 있었다. 재발이 발생했을 때마다 어지럼증이 수반되었고, 스테로이드 주입으로 증상을 완화했다.

다발성경화증과 비슷한 병으로는 시신경 척수염이 있다. 이 병은 주로 눈과 척수의 신경에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신경 섬유를 덮는 물질인 수초가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이 질환은 탈수초 장애인데 다발성경화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은 일반적으로 눈과 척수에 영향을 주는 데 비해 다발성경화증은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7)</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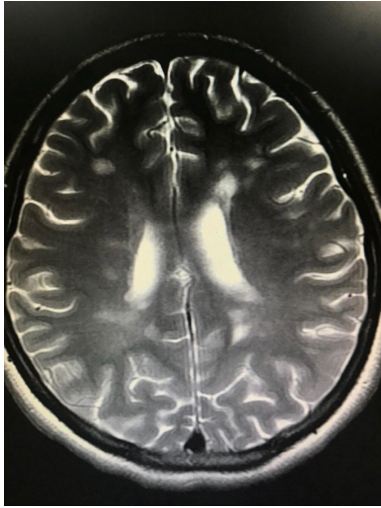
pp.17~21.

6) 위키백과, 다발성경화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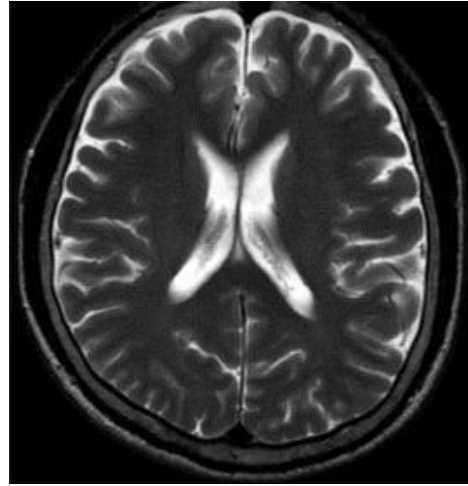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B%B0%9C%EC%84%B1\\_%EA%B2%BD%ED%99%94%EC%A6%9D](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B%B0%9C%EC%84%B1_%EA%B2%BD%ED%99%94%EC%A6%9D) (2024.05.08. 접속)

7) MSD 매뉴얼 일반인용,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

<https://www.msmanuals.com/ko/home/%EB%87%8C,-%EC%B2%99%EC%88%98,-%EC%8B%A0%EA%B2%BD-%EC%9E%A5%EC%95%A0/%EB%8B%A4%EB%B0%9C%EC%84%B1-%EA%B2%BD%ED%99%94%EC%A6%9D-ms-%EB%B0%8F-%EA%B4%80%EB%A0%A8-%EC%9E%A5%EC%95%A0/%EC%8B%9C%EC%8B%A0%EA%B2%BD-%EC%B2%99%EC%88%98%EC%97%BC-%EB%B2%94%EC%A3%BC-%EC%A7%88%ED%99%98-nmosd> (2024.05.08. 접속)



[도판 1] 나의 MRI 사진



[도판 2] 일반인 MRI 사진

1년에 한 번 또는 재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장치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 장치이다. MRI와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Computed Tomography, 이하 CT)와 다른 점은 CT는 방사선의 일종인 X선을 이용하는 데 비해 MRI는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원자핵에 자기장을 가하고 고주파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 변화에서 착안한 것으로, 나침반에 자석을 대면 바늘이 자석을 향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 세포가 정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호가 변화하고 자기장과 고주파로 발생한 신호들을 모아 인체의 단면 및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라 할 수 있다. 이 영상을 분석하여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sup>8)</sup>

다발성경화증은 동양인이나 흑인보다는 유럽계 백인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

8) 네이버 지식백과, 자기공명영상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5769&cid=40942&categoryId=32762> (2024.05.08. 접속)

발생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북미나 유럽 등지에서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100~200명꼴이며, 특히 위도 45~60도 사이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적도 부근에서는 발병률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sup>9)</sup> 이로 인해 치료제에 대한 연구는 서양에서 주로 활발히 진행되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질병 완화제가 개발되고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내가 처음으로 시도한 치료제는 코팍손프리필드주(Copaxone pre-filled syringe injection)였고 나는 매일 스스로 치료제를 직접 주사로 투약하였다. 거울을 보며 양팔의 뒤쪽, 엉덩이의 중둔근, 하복부 피하지방에 주사를 놓았다. 매일 반복되는 주사로 피부들이 괴사하기도 했다. 주사약은 냉장 보관이 원칙인데 보관 방법의 특이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활동에 제약이 많아졌다. 의학이 발달하고 연구가 지속되어 2차 약이 개발되어 복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약은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치료제 보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것에선 자유로워졌지만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은 다시 제약되었다.

## 2) 희귀질환자의 삶과 예술과의 상관관계

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경험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림 그리기 행위에 집중한다.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나를 재발견하게 하는 요소이다. 나는 예술적 행위로부터 스스로 치유를 경험한다고 느낀다. 치유란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을 뜻한다.<sup>10)</sup> 치료는 질병

9) MSD 매뉴얼 일반인용, 다발성경화증(MS), <https://www.msmanuals.com/ko/home/%EB%87%8C,-%EC%B2%99%EC%88%98,-%EC%8B%A0%EA%B2%BD-%EC%9E%A5%EC%95%A0/%EB%8B%A4%EB%B0%9C%EC%84%B1-%EA%B2%BD%ED%99%94%EC%A6%9D-ms-%EB%B0%8F-%EA%B4%80%EB%A0%A8-%EC%9E%A5%EC%95%A0/%EB%8B%A4%EB%B0%9C%EC%84%B1-%EA%B2%BD%ED%99%94%EC%A6%9D-ms>, (2024.05.08. 접속)

10) 네이버 지식백과, 치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6839&cid=50762&categoryId=51365>,

을 완화시키고 낮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의학적 수법을 뜻하며 치유와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sup>11)</sup> 예술적 치유의 기원은 동굴벽화나 제사 또는 축제에서 찾을 수 있다. 원시인들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예술을 통한 치유를 도모했다.<sup>12)</sup> 현대에 들어 사람들은 자기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적 치유를 시도한다. 온천이나 숲 등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종교에 기대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한다. 또한 책을 보고 글을 쓰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나는 그림 그리는 행위와 결과물을 통해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예술적 치유를 시도한다.

작품 제작을 통한 나의 예술적 치유는 미술치료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미술치료는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과 내면세계를 표현하여 참여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과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거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13)</sup> 억압된 나의 감정과 부정적인 기억을 작품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기수용의 태도를 갖고자 한다. 표출 과정에서 나의 감정이 재발견되며 끊임없이 작품과 나의 소통을 통해 시각화된다. 작품과의 교류가 내면의 아픔을 승화한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미술치료사이자 화가인 이디스 크레이머(Edith Kramer, 1916-2014)에 의하면, 미술은 삶의 경험과 동등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sup>15)</sup> 또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는 내면의 경험을 승화하는 행동이

---

(2024.05.08. 접속)

11) 네이버 지식백과, 치료, <https://terms.naver.com/likeMeaning.naver?query=00119108>, (2024.05.08. 접속)

12) 오원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복, 휴(休)』, 인물과사상사, 2014, pp. 161~163.

13)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치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7815&cid=51007&categoryId=51007>, (2024.05.08. 접속)

14)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2000, p. 87.

15) Edith kramer, 김현희, 이동영 역, 『치료로서의 미술』, 시그마프레스, 2007, pp.3~4

고 창작 과정 자체에도 치유의 힘이 존재한다고 했다.<sup>16)</sup>

미술치료가 난치성 환자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예시로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환자에게 인간중심 미술치료를 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치료는 환자에게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콜라주로 제작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내적 욕구를 탐색하게 했다. 그리고 종이에 연필과 크레파스 등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모색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그리거나 광고판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재발견하게 했다. 치료 전후로 K-HTP<sup>17)</sup>, 동적가족화(KFD)<sup>18)</sup>, 자아존중감 검사 등을 시행해 우울 감소 효과를 확인했는데, 치료 이후 우울감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sup>19)</sup> 이 과정에서 환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무력감과 상실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술치료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해 긍정적으로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게 도와주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sup>20)</sup>

나는 자기 응시적 태도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각화시킬 수 있는 재료인 나의 신체를 주요 소재로 활용하여 내면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수용을 하고 치유한다. 자기 극복의 과정을 캔버스에 담아 스스로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환자들에게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정서를 전달하고자 한다.

---

16) 전영성, 「현대미술이 갖는 치유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미술작가 4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4, p. 14

17)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에 동작성을 추가하여 내면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Burns가 개발한 검사.

18) Burns와 Kaufman(1970)에 개발, 발전된 검사로 가족화의 움직임에 더해 가족 간 상호관계의 정서적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다.

19) 유지원, 「인간중심 미술치료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미술치료 연구』, vol. 18, no. 2, 2011, pp. 347-365.

20) 위 논문.

## 2. 작품 조형 연구

### 1) 촬영과 편집을 통한 신체 이미지의 재구성

나는 다발성경화증 환자로서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 신체를 표상으로 활용한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이미지를 제작한다.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해 타인이 제작한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내 신체를 직접 촬영한다. 작품의 출발점인 셀프 카메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에 업로드하는 이미지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SNS의 사진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혹은 다른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 편집되고 사람들과 공유되는 성격이지만 작품 제작을 위해 촬영된 나의 신체 이미지는 상당히 개인적이다. 작업의 주요 바탕이 되는 사진은 나의 나체를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데, 이는 누드의 이미지로 나의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신체 이미지는 캔버스 작품으로 완성된 후 전시장을 통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데, 최종 결과물 속 신체 이미지는 다양한 조형적 표현을 통해 감춰지고 삭제된다.

촬영된 이미지는 편집 과정을 거쳐 페인팅 단계의 초석이 된다. 직접 촬영한 나의 자화상 이미지는 디지털 편집 과정을 통해 크롭된다. 일반적으로 크롭(crop)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례를 바꿔서 편집하거나 특정 부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크롭 과정을 통해 기존에 촬영한 나의 전신 이미지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잘라내고 삭제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신체 중 얼굴 대부분을 잘라내어 나라는 존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팔이나 다리 등을 잘라내고 몸통만을 화면에 가득 차게 만들어 성별의 인식이나 몸짓을 통한 언

어 표현을 최소화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신체의 요소들을 편집 과정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원인 모를 불분명한 병에 대한 원망이기도, 치유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 또한, 나의 개인적인 신체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아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하는 것이다.

나와 유사하게 신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들은 많다. 여기에는 여성 작가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했던 캐롤리 슈니먼(Carolee Schneemann, 1939~2019)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슈니먼은 남성이라는 미술의 전통적 권력 주체에 대해 해체를 주장했고 회화적 행위를 통해 공간과 시간을 확장하는 실험적 작업을 시도했다.<sup>21)</sup>

---

21) THE ART STORY, 『Carolee Schneemann 아티스트 개요 및 분석』,  
(THE ART STORY 2012.10.01),  
<https://www.theartstory.org/artist/schneemann-carolee/> (2024.05.06. 접속)



[도판 3] Carolee Schneemann, <Interior Scroll>, 1975

캐롤리 슈니먼의 대표작으로는 인테리어 스크롤(Interior Scrol)이 있다. 위 작품에서 슈니먼은 그녀의 생식기에서 종이 두루마리를 꺼내 읽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예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신체를 사용하고 예술적인 창조성의 근원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자신의 신체를 관습적인 예술에 도전하고 정치적으로 탐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나의 작품 주제와 다르지만, 몸과 신체적 경험을 작품 중심에 두는 태도는 나의 작품과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2) 위 웹사이트.



[도판 4] Trace, oil on canvas, 213.4x182.9cm, 1993-1994

자신의 신체를 사용한 또 다른 작가는 제니 사빌(Jenny Saville, 1970~)이 있다. 몸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체계를 열어준 제니 사빌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양식화된 누드화의 편견을 깨트리고 여성의 몸을 왜곡하여 혐오스럽게 그렸다.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확대하거나 몸의 부분을 부풀려서 표현한 점은 나의 작품과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내가 확대와 같은 사진 편집을 활용해 작품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녀는 신체의 모양을 변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도판 4]에서 볼 수 있듯이 돼지와 같은 흰 피부에 접히는 살의 무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다듬어진 인체를 나타내기보단 날 것의 고기덩어리 같은 인식이 느껴지게 했다. 그녀는 거대한 화면을 사용하여 비대하게 살이 찐 여성 또는 울퉁불퉁 덩어리 같은 이미지를 통해 미의 일률성에 대해 고찰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비만과 추한 것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아름다움은 단지 차이와 다름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작품을 통해 말한다.<sup>23)</sup>

23) 정윤희, 『젠더 몸 미술(GENDER, BODY, ART)』, 알랩, 2014. p.56.

## 2) 레이어 중첩을 통한 추상적 표현

촬영과 편집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신체 이미지는 캔버스 위에 페인팅으로 옮겨진다. 페인팅 과정은 빨간색 페인팅, 흰색 페인팅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 빨간색은 정지, 경고, 금지를 뜻한다. 또한 불, 태양, 헤모글로빈을 나타내는데 내가 몸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빨간색이 상징하는 곳에 가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sup>24)</sup> 다발성경화증을 가진 환자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 증상 때문에 사우나와 같은 높은 온도의 상황에 있지 못하고 더운 나라 여행을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히 빨간색은 나에게 갈망하는 색이면서도 실제로 느끼기 어려운 색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빨간색을 사용해 몸을 그린다.

나는 캔버스 위에 편집된 신체 이미지를 색연필로 스케치한 후 먼저 빨간색 아크릴 물감만을 사용하여 인물을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명암법을 활용하지 않고, 주로 큰 평붓으로 붓의 필력을 강조하면서 표현적으로 인물을 그린다. 일반적인 누드화에 주로 사용되는 피부색 위주의 색상 표현보다는 빨간색 단색 처리를 통해 평면적이고 추상적 인물을 만들고자 했다. 주민등록증처럼 나를 증명해 주는 신체 위의 다양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단색 처리, 평면적 묘사, 추상적 표현을 통해 더 모호한 인물로 나를 바꾼다. 빨간색 위주의 물감을 활용하여 신체를 그리고 물감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2차 레이어로 흰색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화면을 덮는다. 1차 레이어인 빨간색 화면 전체를, 혹은 일부를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덮는다. 흰색 물감은 화면을 점점 지배하고 빨간색으로 처리된 인물의 존재감을

---

24) 네이버 지식백과, 빨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0001&cid=42641&categoryId=42641>,  
(2024.05.15. 접속)

서서히 사라지게 만든다.

이 표현은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위해 진행하는 MRI 사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MRI를 통해 바라본 나의 뇌는 일반인의 뇌보다 흰색 부분이 많다. 불분명한 이유로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의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면 그 부분은 MRI 상에 하얀색으로 표시된다. 이 공격이 지속해서 축적되고 나의 뇌는 점점 흰색이 누적되어 변해가는 것이다.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칠하면서 빨간색 아크릴로 처리한 인물을 지워가는 나의 행위는 비가시적인 나의 공격과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나의 뇌를 기록하는 시각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흰색에 앞서 말한 뇌에 점철된 병의 상처가 아닌 다른 상반된 의미 또한 부여하고자 한다. 흰색은 전쟁 때 패배, 항복의 의미로서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순수, 청결, 희망 등의 긍정적 의미도 있다.<sup>25)</sup> 그런 이유로 나는 스스로의 뇌를 씻고 깨끗이 하고 싶다는 바람을 흰색으로 나타냈다. 캔버스 위에 칠해진 1차 레이어를 흰색 물감으로 뒤덮은 2차 레이어는 더 이상 젓소만 발려진 흰색 캔버스 천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제로 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내 신체의 고통을 지우고 가리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가 처한 원인 모를 상황에서 벗어나 새롭게 ‘리셋(reset)’ 되기를 바라는 시도이다.

나는 1차 레이어인 빨간색 화면 위에 흰색 아크릴 물감을 드리핑하기, 붓이나 관화용 롤러로 물감을 올리면서 밀어내기 혹은 건조된 화면을 샌드페이퍼로 갈아내기, 거즈로 두드리기 등의 방법을 시도하면서 작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이디스 크레이머는 작가가 자신의 충동을 시각적 이미지로

---

25) 네이버 지식백과, 흰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0942&cid=42641&categoryId=42641>,  
(2024.05.15. 접속)

창조해 내는 행위로 대신한다면 그것을 예술로써의 승화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나는 내 몸의 상처와 제한된 상황을 흰색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여러 기법을 활용하면서 표백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낸다. 구체적인 방법적 측면에서 판화용 롤러를 사용하는 것은 나의 제한된 삶의 한계를 짓누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의료용 거즈를 사용하여 캔버스 표면에 접착하고 물감을 위에 바르는 행위는 캔버스 표면에 새로운 질감을 만들어내는 조형적 의도와 더불어 마치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장치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목공용 샌드페이퍼로 몸의 상처를 떼어내면서 제거하듯이 화면 속 붉은색 신체를 반복적으로 문지르며 긁어낸다. 캔버스 화면에 투영된 나 자신을 롤러로 압착하여 문지르고 거즈를 붙이거나 닦아내고, 샌드페이퍼로 갈아내는 행위들을 통해 상처로 점철된 자신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도판 5] Chiharu Shiota, Between Us, 2020

나는 내면의 부정적 요소들을 조형적 방법을 통해 제거하는 과정을 작품 제작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감상자로 하여금 내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유 받기를 기대한다. 작품을 통해 치유를 시도하는 작가들은 동시대 작가 외에도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았다. 대표적인 작가로, 치하루 시오타 (Chiharu Shiota, 1972~)를 예시로 들고자 한다.

치하루 시오타는 빨간색의 실로 사물과 공간을 엮는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삶의 고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Between Us>(2020)에서 작품의 구성 요소인 실은 인간의 혈관을 형상화하고 있다. 공간을 압도하는 빨간 실은 작가의 정체성과 인간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무한해 보이는 실을 엮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Between Us>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개의 의자는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상징하는데 인간은 혼자만으로는 살 수 없고, 타인과 연결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치하루 시오타는 설치 작업 중 오브제들을 엮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재현하고 직면하면서 명상과도 같은 체험을 시도한다. 나의 작업에도 반복의 행위는 상처의 경험을 은유하고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흰색 물감을 덮고 다시 빨간색 물감으로 그리는 행위를 통해 나의 아픔을 순화시키고 재구성하려는 목적성을 갖는다. 반복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일을 되풀이함이다. 나의 작품에서는 반복은 같은 행위를 다시 한다는 의미보다는 재현하고 생성한다는 것에 가깝다. 치하루 시오타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반복 행위도 단순히 오브제와 실의 엮임의 반복이기보다는 수련의 행위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시오타는 자신이 겪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시도한다.<sup>26)</sup>

---

26) 장윤정, 「물입을 통한 내면 치유-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2021, pp.22-26.



[도판 6] 하이디 부허가 건물의 표면을 라텍스로 뜯는 과정

한편, 하이디 부허(Heidi Bucher, 1982~1993)는 자신의 기억이 담긴 3차원적 실제 공간을 라텍스로 칠하고 천을 덮은 후 건조 후에 벗겨내 특정 공간에 재설치하거나 날려버림으로써 망각에 도달하고자 한다. 부허는 의사였던 아버지의 치료실 혹은 자신을 억압한 물건들을 캐스팅하여 본떠 뜯어냄으로써, 억압된 기억을 극복하고 작품이 되는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자신이 원하는 구조 면에 거즈 천을 덮고 라텍스를 발라 벗겨내는 격렬한 행위는 나의 작업 방식과는 다르지만, 반복적인 행위로 사적인 경험을 보존하고 라텍스를 자기 신체로 떼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자기 극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27) 안태은, 「작가의 수행적 경험과 그 구조에 대한 연구-본 연구자의작업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박사학위논문, 2024, pp.85-86.

### 3. 작품 분석



[작품 1] Untitled, 61x72cm, mixed media on panel, 2022

[작품 1]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병을 작품 제작을 위한 주요 소재로 삼고 진행한 G35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G35는 ICD-10<sup>28)</sup>에 따라 분류된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코드를 뜻한다. 질병코드는 중증질환자로서 나의 자아를 정의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를 나타낸다. 화면 속 인물은 운동선수로 육체의 건강미과 역동적인 동작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병중인 경직으로 인해 내가 모방하기 힘든 자세를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이를 선망하였고, 이 이미지를 활용해 회복에 대한 나의 정신적 의지와 소망을 표현하고자 했다.

---

28)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는 인간의 모든 질병 및 사망에 대한 표준 분류법이다.

작품 제작을 위해 먼저 나무 판넬 위에 나의 신체 이미지를 색연필로 스케치한 후 대형 평붓과 빨간색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여 인체의 큰 명암 처리를 의식하면서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물감이 완전히 건조된 후 흰 계열의 밝은 한지를 화면 전체에 반복하여 쌓아 올리면서 접착하였다. 캔버스 흰 배경 면은 가능한 한 평평하게 한지를 바르고 신체 이미지가 있는 화면에는 접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름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두께와 질감이 있는 레이어를 구축하였다. 동양화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배접<sup>29)</sup> 방식과는 다르게 평평하지 않고 거칠고 두껍게 한지를 축적하였다. 나는 이 과정에서 겹겹이 쌓아 올린 한지의 막으로 1차 레이어인 빨간색 신체 이미지를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면서 흰 배경 면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연한 색의 신체 이미지로 전환시켰다. 나는 백색의 캔버스 화면 공간에서 나의 신체 이미지의 내적, 외적 정화를 시도하였다.

나는 [작품 1]을 시작으로 나의 신체에 대한 관찰과 탐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직접 촬영한 나의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편집하거나, 캔버스 화면 위에 물감층을 만들면서 레이어, 혹은 표면의 질감을 강조하였다. 평평한 화면보다는 높낮이의 차이가 있고 주름이 있는 굴곡진 화면을 만들어 병으로 인해 나약해진 나의 육체와 심신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명암법으로 신체를 표현하기보다는 표현적이고 추상적인 조형 어법을 통해 내가 경험하는 내적인 자아의 모습을 담은 신체 이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신체 표현에서는 평붓을 사용하여 묘사보다는 신체의 특정 포즈에 따른 근육의 움직임의 필력과 물성을 강조하며 그렸다. 신체를 표현한 빨간색 물

---

29) 종이, 형질, 얇은 널조각 따위를 여러 겹 포개서 붙임.

감층이 완전히 건조되면 흰색 물감으로 신체 이미지를 다시 지웠다. 나의 뇌 MRI 사진을 보면 면역 체계가 침투 되고 미엘린이 손상 된 부분은 흰색으로 표시된다. 질병 완화제나 스테로이드를 주입해도 파괴된 부분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화면 안의 신체를 흰색 물감으로 지우는 행위는 나의 상흔을 없애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자 이미 생성된 흔적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되풀이함이라는 반복의 사전적 의미를 복기하였을 때, 나의 작업의 목적은 반복적인 행위 자체를 단순히 생성하여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두께 같은 차이를 주어 작품의 의미와 깊이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관념적 공간을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나의 작업은 병과 싸워왔던 치유 과정을 독특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메시지로 전달한다.



[작품 2] G35-03, 90.9x72.7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2]는 G35 시리즈의 두 번째 작업이다. G35 시리즈는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나를 타자화하고 환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그것의 해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캔버스에 인물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에서 [작품 1]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 자신의 신체를 그렸다. 나는 디지털카메라로 카메라를 등진 나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후 촬영 이미지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여성의 신체 이미지로 보여지는 특성들을 강조하면서도 얼굴이라는 한 인물의 핵심적인 요소를 보이지 않게 하여 작품 속의 인물이 특정인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의도하였다. 그 이유는 감상자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등 작품과의 소통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기도 하고 증상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나의 병의 특성을 담은 것이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30호 캔버스에 연회색의 아크릴 물감을 붓으로 펴 바르고 그 위에 모델링페이스트로 내가 그리고자 한 몸의 형상대로 요철을 만들었다. 몸에 남은 주사의 흔적들을 표현하고자 물감을 두텁게 발라 부분적으로 입체감을 조성했다. 주사를 맞은 피부는 일반 사람의 피부 같지 않고 청록색, 회백색을 띠는데 이러한 피부 표면의 모습을 투사하고자 하였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나의 뒷모습을 빨간색,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큰 평붓으로 사실적 형태와 명암법을 강조하기보다는 단순한 평면적 요소를 부각하며 간결하게 그렸다.

[작품 1]에서는 배경 면과 신체를 일체화시켜 신체가 배경에 흡수되고 희미하게 보이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작품 2]의 경우 빨간색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신체 이미지의 전면을 흰색으로 덮지 않아 인물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빨간색은 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며 태양을 연상케 하는 색이다. 빨간색은 병으로 인해 뜨거운 곳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나에겐 갈망의 색이다. 나는 신체 이미지를 빨간색으로 그리면서 나의 내적인 갈망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빨간색으로 그린 인물의 이미지는 치유에 대한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 고통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 작업 과정이 끝나면 나는 다시 캔버스 화면을 흰 아크릴 물감으로 뒤덮었다. 흰 물감은 MRI 이미지 상 병변으로 덮여가는 뇌의 촬영본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나는 관화용 롤러를 사용하여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화면을 덮어 캔버스 화면 위에서 물감이 짓이겨져서 화면 전체로 퍼지고 확산되는 효과를 연출하였다. 붓을 사용하여 신체 이미지를 지우는 행위는 작품 속 몸의 형상을 배경과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스며들게 만들면서 공간과의 연결성을 만들었고 신체 이미지를 사포로 긁으면서 몸의 빨간색이 공간

으로 퍼져나가는 효과를 주었다. 사포로 긁는 행위는 상처를 떼어내는 것이  
자 아픔을 지우고자 하는 것으로, 나의 병으로 인한 아픔을 지우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을 조형적 이미지를 통해 지워가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작품 3] G35-04, 90.9x72.7cm, acrylic on canvas, 2023

[작품 3]은 [작품 2]에서 사용한 신체 이미지를 더 크롭하여 재사용하였다. 마치 동일한 피사체에 더 근접하여 촬영한 효과처럼 신체의 목 부분을 화면에 나오지 않게 하고 몸통만을 보여주어 덩어리 같은 느낌을 강조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병세가 심해지기 전까지 겉으로 봤을 때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MRI로 관독하기 전에는 절대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품 속 신체 이미지에 개인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재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흰색을 사용하여 나의 뇌의 변화 상태를 나타내었듯이 MRI 상에 검은색과 흰색으로 넘어가는 경계의 색을 차용해 배경을 완전한 흰색이 아닌 회색

으로 채웠다. 색을 통해 내가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허하고  
황량한 느낌을 표출하고자 했다. 매끈한 캔버스 화면 위에 판화용 롤러로  
물감을 문지르며 칠하는 과정에서 물의 양을 최소화하여 건조하고 메마른  
효과를 내는 것을 시도하였다. 실제로 몸에 상처가 난 것 같은 쓸린 흔적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표면을 문지르면서 거친 효과를 만들고자 한 것이  
다.



[작품 4] G35-01, 90.9x72.7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4]는 G-35의 네 번째 작업이다. 옆으로 쪼그려 앉은 나의 누드를 촬영하고 그것을 작업의 초안으로 삼았다. 화면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몸통과 배경이 만들어내는 몸의 형상과 공간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앉은 형태의 신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얼굴, 팔 등은 크롭하였다. 몸의 입체감과 디테일은 큰 붓으로 단순화시켜 거칠게 표현하였고 배경과의 이질감을 주기 위해 색상 대비 효과를 강조하였다. 몸과 배경을 명확히 구분 지은 이유는 이전 작품을 제작할 때와 달라진 나의 심리 상태를 담기 위함이었다. 약해져 가는 나의 몸 상태를 보며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신체의 경계를 선명하게 표현해 현실에서 격리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빨간색과 하얀색이 반복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단순화된 형태는 신체 표현에 있어 기존 작업에 비해 흰색 물감 처리를 최소화하면서 절제된 표현을 시도하였다. 절제된 표면의 효과를 통해 자기 치유의 과정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작품 5] G35-02, 90.9x72.7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5]는 촬영부터 나의 몸을 더 가까이 촬영하여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신체 이미지를 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회화 이미지 내에서도 작품에 사용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몸의 형상은 좌, 우 외각에 겨드랑이 정도만 보이는 단순화된 신체 이미지이다. 관람객은 이를 통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나는 즉각적으로 신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체를 표현하였다. 다발성경화증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신체의 어떤 부분이 일반인과 달리 문제가 있는지, 어떤 증상으로 표출되는지, 아무것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나의 모호한 전신 상태를 캔버스 화면 안에 확대한 나의 신체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물감을 캔버스 위에 흘리거나 붓는 또는 튀겨서 제작하는 회화기법을 드리핑 기법이라고 한다.<sup>30)</sup> 미국의 액션 페인팅 작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은 이 기법을 사용해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하고 에너지와 역동성을 화면에 담으려 했다. 나는 나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의 몸을 소재로 캔버스 화면에서 조형적 표현을 시도한다.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드리핑 기법을 사용하였다. 잭슨 폴록은 진득하고 물성이 있는 에나멜을 사용했다면, 나는 물감을 아주 연하게 배합하여 드리핑 효과를 시도하였다. 배합된 물감뿐만 아니라 물, 아크릴 지연제를 뿌려 신체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지우고 화면에 물을 떨어트리면서 우연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캔버스 화면 위에 화석화된 거품 같은 조형적 표현은 나에게 있어서 나만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었다. 쏟아진 물을 불규칙적으로 퍼트리고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찰나의 과정을 통해 나를 치유하고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

30) 월간미술 편집부,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150.



[작품 6] G35-14, 162.2x130.3cm, acrylic on canvas, 2023

[작품 6]은 캔버스 전체 화면에 인물 이미지를 가득 채워 배경을 없애고 인물 표현에 집중한 작업이었다. 빨간색과 짙은 마젠타색의 대비를 통해 웅크린 인물의 자세를 그렸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명암의 대비 효과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한 인물의 특정 동작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름이나 근육의 움직임에 포착하여 섬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동작이 만드는 특징적 요소들을 화면 속에서 단순화시켜 추상적인 인물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클로즈업, 추상적 표현을 통한 인물의 모호성은 내가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나는 화면 속 인물을 특정인의 모습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와 구도로 담아내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원인 모를 불분명한 병과 치료에 대한 막연함을 타인에게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화면 속 신체 이미지를 인물보다는 마치 바위와 같은 자연물을 연상할 수 있도록 평붓으로 붓질을 크게 하고 색의 대비를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물감이 건조된 후 화면 위에 흰색 물감과 물을 흘리면서 거품과 같은 비눗물이 흘러 내려오는 듯하게 연출했다. 샤워하는 듯한 번지는 질감과 창에 떨어지는 빗물 같은 표현은 나를 회화적으로 정화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 작품은 붓을 활용한 흰색 아크릴 물감의 흘리기 기법뿐만 아니라 캔버스 표면을 의료용 거즈로 닦아내면서 칠하고 지우는 반복적 행위와 표현을 강조하였다. 의료용 거즈는 일반적으로 몸의 상처를 보호하고 균으로부터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멸균 처리된 천이다. 나는 흰색 아크릴 물감과 물을 1 : 10 정도로 희석한 물감 용액을 만들고 거즈를 이에 적신 후 캔버스 화면을 실제 몸의 상처를 드레싱 하듯이 두드려 닦았다. 작품 속에 투영된 나의 원인 모를 병과 상처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행동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면서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7] G35-08, 90.9x72.7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7]은 [작품 6]과 비교하여 신체의 클로즈업보다는 누워있는 인체의 이미지와 나의 내면적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는 지쳐 나약해지는 나의 몸과 마음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시각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캔버스 화면을 보면 손과 발은 배경 화면에 흡수되어 사라지게 만들고 이미지를 크롭하면서 몸통과 허벅지를 위주로 인물을 표현하였다. 제작 과정을 살펴보자면, 판넬 위에 젯소를 바른 후 1차 레이어로 인물 이미지 주변의 배경 화면을 보라색과 주황색을 선택하여 평붓으로 거칠게 칠하였다. 두 색의 선택과 거친 붓질을 통해 나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면서 제한된 나의 일상적 삶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인물 이미지는 채도가 강한 빨간 아크릴 물감으로 인체의 입체적인 요소를 단순하게 강조하여 표현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도배용으로 사용되는 길고 넓은 평붓을 사용하여 흰색 물감을 화면에서 쓸어내렸다. 배경에 처리한 흰색 아크릴 물감은 인물 이미지와 배경에 스며들면서 인물과 배경의 경계를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흰색 아크릴 물감이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물만을 묻힌 평붓으로 캔버스 표면을 스치듯 움직이고 일정한 방향성을 주면서 화면 하단으로 물이 흐르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덜 건조된 배경의 흰색 물감과 물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캔버스 하단으로 흘러 내리는 과정에서 붉은 신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물감층 표면의 요철을 타고 내려오게 하였다. 흰색 물감 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흰색 아크릴 물감과 물을 사용하여 흰색 레이어를 지속적으로 쌓아 올리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치유에 대한 나의 끊임없는 갈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8] G35-10, 90.9x72.7cm, mixed media on panel, 2023

[작품 8]은 인물 이미지를 그리기 전에 화면 전체에 파스텔 그라운드를 판화용 롤러로 칠했다. 결과적으로 매끈한 흰 캔버스 화면 위에 마띠에르<sup>31)</sup>를 강조하면서 오랜 시간 병으로 인해 고착된 나의 육신과 내면의 상처를 시각화하였다. 이후 파스텔 그라운드 작업이 완성된 후 채도가 낮은 빨간색 아크릴 물감으로 신체 이미지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흰색 오일 파스텔로 표면을 거칠게 문지르거나 그으면서 화면 위 인체의 존재감을 상실시키고자 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내면 깊숙이 응축된 비가시적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인체 이미지의 자세나 형태를 드러내기 보다는 인체를 구성하는 표면의 질감 처리에 집중하였다.

---

31) 물질이 지닌 재질, 질감

오일 파스텔의 옆면을 화면에 문지르는 행위는 어떤 대상을 지우고자 하는 나의 목적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하였다. 나는 일 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MRI를 촬영하는데 이때 나의 뇌에 침투하여 파괴하는 자가면역의 흔적은 흰색으로 나타난다. 빨간 신체 이미지에 흰색 오일 파스텔을 칠하는 행위로 상처를 순화하는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흰색 파스텔은 정화의 의미인지, 공격당한 상흔인지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일 파스텔로 화면의 신체 이미지 위에 마띠에르를 강조하였고 반복적인 조형적 행위 과정을 통해 상흔을 정화하는 시도를 지속했다. 오일 파스텔로 화면의 전체를 칠하는 행위는 배경과 신체 이미지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면서 화면 공간 속 모든 요소들을 흰색으로 표백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작품 9] G35-13, 119.2x85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9]는 작품으로 활용한 이미지 선택과 처리에서 독특한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몸을 최대한 웅크린 자세를 취한 뒤 촬영을 시도한 이미지이다. 캔버스 화면 중앙에 배치한 인물은 화면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인물의 묘사보다는 색 면을 강조하면서 평면적 인물을 화면에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배경은 인물과 다소 대조적으로 처리했다. 평붓을 활용해 묘사보다는 붓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면서 인물을 표현했으나, 배경에는 물감을 흘리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붓질과는 다른 표현과

우연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인물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각각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흘리기 기법을 통해 배경과 신체의 이질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보이는 이미지로 연출했다. 이를 통해 배경과 인물 간의 경계가 연결되면서 새로운 공간감과 깊이감을 주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구속과 제약이 있는 나의 현실의 상황은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드는 데, 이를 숨기지 않고 화면에 오롯이 나타내고자 했다.

이전 작품들과 다르게 배경을 상대적으로 어둡게 표현하여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나를 압박하는 암담함을 시각화했다. 빨간색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한 나의 신체 이미지는 물감이 마른 후 흰색 아크릴 물감을 거칠게 평붓으로 붓질하면서 신체의 일부를 덮었고 물감이 건조된 후 다시 빨간색 아크릴 물감을 올리면서 레이어를 만들어냈다.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이전 레이어를 덮는 과정에서 화면 위에 먼저 올린 물감층의 흔적을 부분적으로 남게 하면서 각각의 레이어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시도한 나의 반복적인 조형적 행위들의 층위가 시간의 흔적처럼 지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의 치료 과정에서 증상과 흉터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반복적인 상황들을 가시화한 것이다.



[작품 10] G35-16, 119.2x85cm,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10]은 캔버스 표면 위에 먼저 파스텔 그라운드를 롤러로 압착시키고 건조 후 다시 모델링 페이스트를 쌓아 올려 표면 위에 다양한 질감을 만들려고 하였다. 여기에는 무엇인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지탱하여 앉아 있지만 다소 불안해 보이는 인물 이미지를 포착하고 화면에 담고자 하였다. 인물 이미지는 이전보다 고채도의 빨간색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하고 화면과 배경 사이 분리성을 강조하여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상태의 나를 나타내고자 했다. 신체 이미지 위에 과감하게 올린 흰색 물감의 드리핑 표현은 내재된 나의 불안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판넬 화면 상단에서 흰색 물감을 흘리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판넬을 바닥에 놓고 흰색 물감을 위에서 던지는 과정에서 불안과 상처가 전신에 점철된 인물 위에 흰색 물감의 탁한 물의 맺힘, 불규칙한 물의 줄기들이 불명확한 장기 형태를 연상할 수 있게 표현했다. 이러한 추상적 이미지의 요소들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나의 막막한 감정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 11] G35-15, 162.2x97cm, acrylic on panel, 2024

[작품 11]에서는 병의 공격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나 자신을 놓아버린 듯 지친 상태로 누워있는 자세의 인물 이미지를 선택하였다. 얼굴, 손, 발 등의 신체 요소를 화면에서 적극적으로 크롭하면서 내가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소극적인 내면의 모습과 태도를 숨기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상적인 요소를 화면 위에 나타내었다. 배경에는 자신의 내면을 감싸는 안도감과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피부색을 연상할 수 있는 채도를 높인 난색 계열의 색을 활용했다. 화면 중앙에 폭탄과 같이 물감을 던져 터진 듯한 튼 물감들과 물방울들은 나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병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또한, 흩어진 파편 같은 흔적들이 채 마르기 전

물을 그 위에 떨어트려 상흔과 같은 흰 자국들이 벌어지거나 섞이면서 신체와 배경을 연결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의 상처가 벌어지는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다.

### III. 결 론

본 논문은 2024년 석사청구전 'G35'에 전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내가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예술 작품으로 해소되는 것을 연구한다. 더 나아가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치유의 역할과 예술이 삶에 주는 긍정적 의미와 효과에 대해 탐구하였다. 논문을 통해 나의 작품의 본질은 자신의 고통을 신체 이미지로 시각화하고 창작 과정에서의 행위를 기반으로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여 치유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다발성경화증 환자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 질환이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다발성경화증의 증상과 치료 과정을 통해 다른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정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예술적 표현이 난치성 환자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예술적 표현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는 스트레스 감소이다. 창작 과정에서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함을 잠시 잊을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자신의 고통이나 경험을 예술 작품을 통해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난치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다. 또한, 희

귀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구성된 나의 나체 이미지를 통해 나만의 치유 방식을 찾고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의 시각적 표현 방법을 분석하였다. 신체의 이미지를 사실적인 재현이 아닌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작 과정에서 드리핑 기법과 굿기 같은 수행적 표현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형적 행위는 환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난치성 환자인 나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이 어떻게 치유적 측면과 연계되는지 심층적인 작품 제작을 통해 탐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형적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전개할 나의 작품 세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면의 억압과 지속적이고 끝없는 치료로 고통받는 다른 환자들의 상태와 감정을 화면에 담아내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확장성을 갖고자 한다. 미술치료와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예술의 다양한 역할과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여러 형태나 매체를 활용한 작품 제작을 통해 치유의 대상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로 확대하는 방향성에 중점을 두어 연구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동연, 공마리아, 『HIP와K-HTP심리진단법』, 동아문화사, 2002

네이버 국어사전, 배접,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EB%B0%B0%EC%A0%91&from=tsearch%jana/kkaena=saranghae>

네이버 지식백과, 다발성경화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2628&cid=56740&categoryId=56740>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치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7815&cid=51007&categoryId=51007>

네이버 지식백과, 빨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0001&cid=42641&categoryId=42641>

네이버 지식백과, 자기공명영상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5769&cid=40942&categoryId=32762>

네이버 지식백과, 치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6839&cid=50762&categoryId=51365>

네이버 지식백과, 치료,

<https://terms.naver.com/alikeMeaning.naver?query=00119108>,

네이버 지식백과, 희귀질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4140&cid=67525&categoryId=67525> (20,

브라이언 매튜스, 마가렛 라이스 옥슬리, 『다발성경화증』, 문준식 외 옮김, 백의, 2010

월간미술 편집부,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안태은, 「작가의 수행적 경험과 그 구조에 대한 연구-본 연구자의 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박사학위논문, 2024

오원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복, 휴(休)』, 인물과사상사, 2014

유지원, 「인간중심미술치료가 강직성척수염환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2011

유영규, 『장수 혁명의 시대...'100세 청춘' 고령자들이 전한 비결』, (SBS 뉴스, 2024.05.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9295&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9295&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위키백과, 다발성경화증,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B%B0%9C%EC%84%B1\\_%EA%B2%BD%ED%99%94%EC%A6%9D](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B%B0%9C%EC%84%B1_%EA%B2%BD%ED%99%94%EC%A6%9D)

위키백과, 미엘린,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C%97%98%EB%A6%B0>

장윤정, 「몰입을 통한 내면 치유-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2021

정윤희, 『젠더 몸 미술(GENDER, BODY, ART)』, 알렙, 2014.

최외선, 정현희, 『동적 가족화와 심리진단』, 중문출판사, 2004.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2000.

한정선, 『희귀 질환자지원, 현 제도로는 안돼...근본 해결책필요』, (헬스 경향, 2023.09.12 ),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7144>

Edith kramer, 김현희, 『크레이머의 미술치료 치료로서의 미술』, 2007

MSD 매뉴얼 일반인용,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

<https://www.msmanuals.com/ko/home/%EB%87%8C,-%EC%B2%99%EC%88%98,-%EC%8B%A0%EA%B2%BD-%EC%9E%A5%EC%95%A0/%EB%8B%A4%EB%B0%9C%EC%84%B1-%EA%B2%BD%ED%99%94%EC%A6%9D-ms-%EB%B0%8F-%EA%B4%80%EB%A0%A8-%EC%9E%A5%EC%95%A0/%EC%8B%9C%EC%8B%A0%EA%B2%BD-%EC%B2%99%EC%88%98%EC%97%BC-%EB%B2%94%EC%A3%BC-%EC%A7%88%ED%99%98-nmosd>, (2024.05.08. 검색)

MSD 매뉴얼 일반인용, 다발성경화증 (MS)

,<https://www.msmanuals.com/ko/home/%EB%87%8C,-%EC%B2%99%EC%88%98,-%EC%8B%A0%EA%B2%BD-%EC%9E%A5%EC%95%A0/%EB%8B%A4%EB%B0%9C%EC%84%B1-%EA%B2%BD%ED%99%94%EC%A6%9D-ms-%EB%B0%8F-%EA%B4%80%EB%A0%A8-%EC%9E%A5%EC%95%A0/%EB%8B%A4%EB%B0%9C%EC%84%B1-%EA%B2%BD%ED%99%94%EC%A6%9D-ms>, (2024.05.08. 검색)

THE ART STORY, 『 Carolee Schneemann 아티스트 개요 및 분석』,  
(THE ART STORY.)

<https://www.theartstory.org/artist/schneemann-carolee/> (2024.05.06. 검색)

# ABSTRACT

## Self-Exploration Through Abstract Expression of Body Images – Focusing On My Works –

Cheon Hyo Wo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describes the content and formative research process of my 'G35' series, which I have worked on from 2022 to 2024. The 'G35' series represents an attempt at self-healing, express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I experience as a severely ill patient undergoing treatment by using abstract compositions and various techniques on canvas based on images of my body.

Modern society is often referred to as the 'longevity revolution,' an era where human life expectancy exceeds 100 years. Due to remarkable advances in modern medicine and the proliferation of cutting-edge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approximately half of

today's five-year-olds will live to be 100 years old. However, there remain many rare intractable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treat with contemporary medical practices and have limited treatment options. As a patient with multiple sclerosis, I strive to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by accepting and confronting the challenges I must face rather than avoiding them.

In this process, I aim to pursue inner healing by expressing my emotional state and will to overcome my condition through formative representation on canvas, centered on images of my body. By painting my own image in red on the canvas and repeatedly layering or dripping white paint over it, I obscure the presence of my red body, seeking emotional stability and attempting to express suppressed emotions.

This paper studies the healing effect that occurred during the course of my work. It examines how the lives of patients with rare intractable diseases can be improved through art. Expressing my pain and experiences through my artwork, aids in self-understanding, boosts self-esteem, and promotes self-acceptance, thus reaffirming my identity. I hope that my work will not only help patients with intractable diseases, but all patients to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ir pain,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healing. Furthermore, through this paper, I reflect on the process of artistic sublimation and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artistic healing. I also hope to raise social awareness and solidarity regarding rare intractable diseases. For myself, I expect this to help me develop my expressive research methods and overcome limitations in my artistic practice.